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이번 주부터 임 대영 집사님께서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임 미숙 집사님도 함께 환영하며 감사합니다.
주소 : 112 Magnolia Ave.(Rear), Cresskill, NJ 07626
전화번호 : (201) 568-7079 (Home) / (201) 655-3634 (Cell)

- 전교인 수련회

주제 :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본문 : 시편 133 편
 일시 : 2017. 9. 9 ~ 10 (토~주)
 장소 : Honor's Haven Resort, Ellenville, NY

2017년 9월 안내 : 전 영자 권사
 다음 주 기도: 홍 성철 집사 / 시편 149 편
 이번 주 친교: 윤 정호 집사 / 안 상민 집사
 다음 주 친교: 최 경자 집사 / 이 현주 집사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 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 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성경공부: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 : 이민영 목사 914.874.3606(C)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 Edwin Kim

유년부 간사 : 안 정자 / 지휘자 : 임 대영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주일에배순서

2017년 9월 3일

인도: 이 민영 목사

- *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함께
 “다 찬양하여라”
- *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 찬송 (Hymn) 446 장(통 500 장) 다함께
 “주 음성 외에는”
- 대표기도(Invocation) 시편(Psalms) 105 편 1~6 한 주루 권사
- 찬양(Choir) “복 있는 사람들” 세광찬양대
- 봉헌기도 인도자
-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수(Josh) 23; 1~16 인도자
- 설교 (Sermon)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 민영 목사
- *찬송 (Hymn) 455 장(통 506 장) 다함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 * 축도 (Benediction) 이민영 목사
-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최문재(혼두라스)

2017. 8. 27. 주일 설교 요약

모세에게 한 것처럼 (수 1:1-11; 16-18)

모세의 세대가 가고 여호수아의 세대가 왔습니다. 모세의 세대는 출애굽과 광야의 시대, 다시 말해 구원과 언약의 시대였습니다. 바로와 홍해, 광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과정에 사용받았습니다. 바로 앞에 하나님께 같았고 그의 지팡이가 들렸을 때 홍해가 열리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간구해 이스라엘이 진노를 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통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언약식을 이행하고 율법을 받아 전하는 중보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1 절)이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수 있었습니까? 모세의 크고 위대한 족적 앞에 여호수아는 어린아이처럼 떨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세 번이나(6, 7, 9 절) 강조하신 것은 그런 여호수아를 격려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전혀 무자격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시종(1 절)”이란 표현은 몸종이란 의미보다는 “보좌관, 부관”의 의미입니다. 모세의 사역을 바로 곁에서 돕고 지켜보며 산전수전을 다 겪고 증명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시종이든 부관이든 여호수아 자신의 능력과 자질 이전에 모세와 함께 하며 모세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는 다름 아니라 “모세에게 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하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어도(2 절), 그 빈 자리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모세의 빈 자리가 아무리 커도 사람의 자리라면 곧 흔적도 없이 잊혀집니다(시 103:15-17). 누군가 대체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였습니다. 아무리 자격있는 사람도 채울 수 없고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자리였습니다. “모세에게 함께 한 것처럼”(출 3:12,14)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도움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임재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한다”(I AM with you)는 말씀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임마누엘) 주시는 것입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I AM).” 자기 이름을 주십니다.

모세가 구원과 언약의 대리자였다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 승리(5 절)와 언약(7,8 절)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근거는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시종 여호수아에게 물려준 것은 경험도 지식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은 자기 사람 만들기도, 교회 일꾼 키우기도 아닌 자기와 함께 하는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물론 최선을 다해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돕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하고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보기만 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사명의 핵심은 이룬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과 언약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홍해 같은 막다른 길도, 광야 같은 목마른 길도, 문체가 둘러싼 두려운 길도 하나님이 안고 건너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 가운데 참된 예배와 순종을 명하셨습니다.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약 백성이 된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시다.